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September 25, 2026 Vol. 1026

## 41년 선교의 역사 넘어 '새 일'을 향해

**충현선교교회 10월 1일–4일**
**'역사를 넘어 새 일을 향해'**
**'2026 새일세계선교대회'**



충현선교교회에서 10월 1일-4일까지 열리는 새일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민종기 목사와 국윤권 목사를 만나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 개최의 의미와 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 기독일보

북미 대륙의 제왕나비는 매년 가을 캐나다와 미국 북동부에서 출발해 2천 마일이 넘는 거리를 날아 멕시코 중부까지 이동한다. 그러나 그 긴 여정은 한 세대의 나비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세대가 앞선 세대의 길을 이어 날아갈 때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한다.

충현선교교회의 선교 역사도 이와 닮아 있다.

앞선 세대가 흘린 눈물과 기도, 헌신 위에서 복음의 지경은 계속 넓어져 왔다.

선교를 핵심 사명으로 품었던 충현선교교회가 오는 10월 1일(목)부터 4일(주일)까지 '역사를 넘어 새 일을 향해'를 주제로 '2026 새일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2019년 '선교사 파송 3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7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32명과 선교사 자녀(MK) 5명 등 총 37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는 충현선교교회가 걸어온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충현선교교회는 1985년 8월 11일 교회 설립과 함께 선교 사역을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정하고 선교위원회를 조직했다.

이어 1992년 8월에는 선교 사역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종교법인 '충현새일세계선교회'를 주정부에 공식 등록하며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

충현새일세계선교회가 붙들어온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이다.

1989년 10월 1일 안명수·이상희 선교사 부부를 과테말라에 첫 선교사로 파송한 이후 선교의 지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26년 현재까지 충현선교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누적 35개 지역 91명에 이른다. 현재 18개 지역에서 35명의 파송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들을 기도와 후원으로 섬기고 있다.

41년에 걸친 이러한 선교의 역사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과 그들을 보내고 기도해 온 성도들의 헌신이 오늘의 선교 역사를 만들었다.

국윤권 담임목사는 이번 선교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감사와 새로운 출발'을 꼽았다.

국 목사는 지난 2019년 '선교사 파송 3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이후 7년 동안 선교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대회"라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충현선교교회가 처음 선교의 비전을 품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1대 정상우 목사님과 성도들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충현새일세계선교회를 설립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4면에서 계속

## 박진영, " '첫열매들', 기존 교파와 완전히 같지는 않아"

**믿음은 웨슬리안 감리교**
**구원 상실 여부는 럭크만 계열**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 강조**



강연하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 ⓒ 영상 캡처

가수 박진영 씨가 자신이 속한 '첫열매들 교회'의 구원관과 신학적 배경을 설명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는 웨슬리안 감리교의 영향을, 구원을 받은 뒤 이를 잃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피터 럭크만 계열의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교파 어느 곳과도 핵심 교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첫열매들'에 공개한 '박진영 씨 교회 무슨 파예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교회의 교리와 형성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한 근본이 있고, 확실히 족보가 있는 교회"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파는 교리를 보고 구분하는 것이고 교리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구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리를 살펴볼 기준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와 '영생을 얻은 후에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첫열매들 교회의 입장과 영향을 받은 교파·인물을 설명했다.

장요한 기자 ➔ 12면에서 계속














주님의빛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및 북한선교 파송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 은퇴가 아닌 파송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주님의빛교회 조은성 목사 취임 · 주혁로 목사 북한 중보기도 사역자로 재파송**

"저는 은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되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28년간 주님의빛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온 주혁로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북한 동포의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자로 새롭게 파송됐다. 제2대 담임목사에는 조은성 목사가 취임했다.

주님의빛교회는 9월 20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오전 주일예배에서 주혁로 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오후 4시 담임목사 이·취임 및 파송 감사예배를 드렸다.

주혁로 목사는 디모데전서 6장 11~12절을 본문으로 한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탐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하며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임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되는 것"이라며 "이제 사역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의 인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성 목사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겠다"**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조은성 목사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지나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했다.

주혁로 목사 부부에게 감사를 전한 조 목사는 "두 분이 세운 믿음의 터전 위에서 목회의 사명을 이어받게 된 것을 큰 은혜로 여기며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에 거룩한 두려움이 더 크다"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느티나무로"**

이날 예배에서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주혁로 목사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유하며 "교회를 개척한 후 많은 이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열매를 얻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고 말했다.

조은성 목사에 대해서는 '느티나무'에 비유하며 "성도들을 품어주고 지친 이들이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교회는 이임식에서 주혁로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 목사는 1998년 기도처를 시작해 이듬해 주님의빛교회를 창립했으며 지난 28년간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왔다.

조은성 목사는 2025년 7월 동사목사로 부임해 약 1년간 주 목사와 함께 목회했으며, 교회는 2026년 7월 공동의회를 통해 조 목사를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북한 중보기도 사역자로 새로운 출발**

파송식에서 주혁로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 중보기도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으로 다가왔다"며 "기대감과 두려움, 그리고 확고한 다짐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입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며 "북한에 복음 부흥의 날이 올 때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도들도 주 목사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하며 북한 동포의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사명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노회원과 목회자, 장로들은 주 목사 부부에게 안수하며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이·취임 및 파송예배는 28년 목회의 끝이 새로운 사명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목회로 계승되는 자리였다.

**김민선 기자**

# 삼성장로교회 42년은 하나님의 은혜

**4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신원규 담임목사와 온 교인 공동설교로 예배**

"기쁨의 날도 있었고 눈물의 날도 있었습니다. 축복의 때도 있었고 어려움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고백한 감사의 메시지다.

삼성장로교회는 지난 20일 오후 3시 풀러턴 교회 본당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예배 및 권사 임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설교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원규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16~19절을 본문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공동설교를 인도했다.

그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만인제사장"이라며 "오늘은 온 회중이 함께 설교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공동설교는 지난 42년을 돌아보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연약할 때 붙드셨으며,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셨다"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일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장로교회의 42년 역사는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성도들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교회는 창립 42주년을 새로운 사명을 향해 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신 목사와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계승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했다.

온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했다.

예배는 샬롬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해, 엄영민 목사가 대표기도했다. 엄 목사는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과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며 "42년을 감사하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주영욱 목사는 삼성장로교회가 지난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섬기고 선교에 힘써온 교회라고 격려했다.

민경엽 목사는 "온 성도들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어서 진행된 권사 임직식에서는 전가일·백금혜·윤금순 씨가 시무권사로 임직했으며, 김미숙·김은주 씨가 명예권사로 추대됐다.

삼성장로교회를 만나 36년 동안 반주자로 섬긴 전가일 권사는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권사가 되겠다"며 "받은 직분을 자랑으로 여기기보다 더욱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금순 권사는 "이민생활의 외로움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며 "하나님께서는 친구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고 간증했다. 그는 "남은 순례의 길을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드리라고 권면했다. 이창남 목사는 "권사는 성도들 곁으로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며 임직자들을 축복했다.

임광순 장로의 시편 23편 특별찬양 후 교회는 임직자들에게 임직패와 성경을 전달했으며, 지난 2년 동안 권사회장으로 섬긴 김민자 권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는 순서에서 신원규 목사는 중국 길림성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탈북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수놓아 선물한 작품을 소개했다.

예배는 '김기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민선 기자**



삼성장로교회는 지난 20일 창립 42주년 기념예배 및 권사 임직식을 개최했다. © 기독일보



# ‘지구촌은 나의 목장’ 뮤지컬로 전한 선교 정신

**임성진 총장 "선교의 불길 다음 세대로 번져가길"**
**송정명 전 총장, "선교 열정과 비전을 남긴 목회자"**
**윤임상 교수, "이 시대 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





임동선 목사의 생애와 선교 정신을 담은 뮤지컬, '지구촌은 나의 목장'. ⓒ 기독일보

월드미션대학교(WMU)와 동양선교교회 설립자인 고 임동선 목사의 소천 10주기를 맞아, 그의 생애를 담은 뮤지컬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 지난 9월 19일(토) 오후 6시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WMU가 주최하고, WMU 음악과, 위너스 챔버,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Seasun, 대표 클라라 신)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2023년 초연된 오페라틱 오라토리오 ‘지구촌은 나의 목장’의 기본 구조를 계승하면서 극적 요소를 강화하고, 작품의 예술성을 높였다.

총괄예술감독은 윤임상 교수, 제작·감독은 클라라 신, 연출·대본 개정·극 구성은 뮤지컬 배우 최원현, 신규 작곡과 편곡은 백낙금 작곡가가 맡았으며, 위너스 챔버소속 배우들과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동문 및 재학생들, 라크마 챔버 콰이어(LAKMA Chamber Choir)가 각각 연기와 합창으로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축하 음악회, 2부 뮤지컬 드라마, 3부 장학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축하 음악회에서는 LA 신포니에타(LA Sinfonietta Orchestra)가 연주하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라 탱고(지휘 김용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테너 오정록, 지휘 김경희),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뉴송 미션 콰이어, 지휘 케빈 리),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푸가 미스테리오(지휘 박종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축하 음악에 이어 박성근 목사가 기도하고, 뮤지컬 ‘지구촌은 나의 목장’의 공연이 시작됐다. 공연은 총 3막 10극으로 구성되었다. 첫 장면은 임동선 목사의 삶에 관한 배우들의 나래이션으로 시작됐다.

임 목사의 형인 임수열 전도사의 전도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장면, 서울 신학교 시절 지게꾼으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한 이야기, 전쟁과 피난길, 온천장, 여주읍 교회에서 개척과 부흥을 이끌었던 장면, 이승만 대통령과의 독대와 선지자적 선포 ‘회개하십시오!’, 미국 인쇄소에서 일하던 유학시절, 동양선교교회 개척과 부흥, 그리고 은퇴 및 월드미션대학교 설립까지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졌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유학시절부터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시기까지를 담은 3막이었다.

3막에서는 고 임동선 목사와 동역한 사람들이 그의 은퇴 자리에 모여 그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민사회와 이민교회 안에 그의 삶이 어떻게 추억되고 있는지를 전달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고 임동선 역으로 분한 배우 최원현 씨는 임 목사의 선교 열정을 연기와 노래로 전달했고, 임동선 목사의 아내 '황재순' 역으로 분한 한예랑 씨는 개척교회, 이민교회 사모의 애환과 강인함을 그려냈다.

또한, 임수열 전도사로 분한 서재호, 권력자 및 다수 역으로 분한 김궁, 동역자 역에 김수연, 유학생 역에 연주현, 신학생 선배 및 훈련병 역에 백동휘, 이승만 및 여러 역에 오위영 등 배우들과 음악가들이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제작·감독을 맡은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의 대표 클라라 신을 비롯해, 무대 감독 이은주, 기술 서포트에 트리니티 MS 피터 박, 등 여러 명이 무대 뒤에서 섬겼다.

뮤지컬 공연에 이어 3부 순서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장학금은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이 고등학생 6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남가주교회협의회, 미주밀알선교단, 남가주어린이전도협회, 라티노 협력교회, WMU 교직원 자녀 등이 협력했다.

이번 고 임동선 목사 소천 10주년 기념 뮤지컬은 준비위원회 임성진 총장, 송정명 전임 총장(실행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윤성환 전임 이사장, 실행위원회 총무 윤임상 교수로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WMU 이사회, WMU 동문회, WMU 학생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및 여러 단체 및 개인이 협력했다.

동양선교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와 선교 기관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국제 선교 협력 기관인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소속 여러 교회들과 70개 이상 남가주 교회들이 협력했다.

이번 공연에서 극본과 연출을 맡은 최원현 배우는 연출 노트를 통해, “한 세대가 붙들었던 말씀이 다음 세대로 건너가고, 무대 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디 한 기자

# KPCA 서노회 107회 정기노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자”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 제107회 정기노회(서남노회 제75회)가 참빛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 기독일보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 제107회 정기노회(서남노회 제75회)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참빛장로교회(강승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노회는 서노회와 서남노회가 통합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출발하는 첫 정기노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노회는 1973년 9월 제1회 정기노회를 시작으로 53년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서남노회는 1989년 9월 서노회에서 분립됐다. 이후 37년 만에 두 노회가 다시 통합해 ‘통합 서노회’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

첫날 열린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우상림 목사(영원한기쁨교회)는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본문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통합의 출발점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목사는 “오늘은 통합 서노회로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37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가 서노회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 서로의 다름을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면서 통합 서노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각 지교회에는 하나 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한다”고 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섬김의 본이라고 강조했다. 우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12면에 이어서 계속]

토마스 맹 기자


## 2027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7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여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19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34,888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처음 출범한 2001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3,281,488입니다.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 (소속기관) 증명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기관 담당 교사)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금 & 근로복지금: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금 :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6년 12월 4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6년 12월 30일(수) 개별 통보함

■ 수여식
2027년 1월 18일(월)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무실) www.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사랑의 찬양제' 성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한경환 장로)가 9월 20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본당에서 제18회 '선교와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협의회 수석부회장 노수길 장로의 인도로 직전회장 이득표 장로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은목 목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시편 150:1~6)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연합찬양단.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김 목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일"이라며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했다. 예배는 박은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경환 장로는 인사말에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가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선교사 지원, 다음 세대 인재 양성,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부 찬양제는 협의회 부회장 엄광섭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나성영락교회 브니엘 여성찬양단은 '그 사랑 이제 알았네'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단은 '내게 강 같은 평화'와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했다.

미주코랄 Harmony of Divas, 실비치 사랑교회, 미주여성코랄도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테너 최원현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독창했다.

배재코랄과 아이노스 합창단에 이어 남가주장로성가단이 찬양을 선보였다. 마지막에는 참가 대원들이 연합찬양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함께 부르며 찬양제를 마무리했다. 김민선 기자

# 새일세계선교대회, 온 성도를 선교적 삶으로 초청

➔ 1면 기사 〈새일세계선교대회〉에 이어서

이어 "'역사를 넘어 새일을 향해'라는 주제에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로운 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교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충현선교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윤권 목사는 최근 주일설교를 통해서도 이번 선교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사명을 선교와 연결했다. 세상의 다스림이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내 돌봄을 통해 생명이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내게 맡겨진 곳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세계선교대회를 언급하며 오랜 세월 선교지를 지켜온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어 온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국 목사는 "우리의 선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가꾸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꽃이 피고 그 땅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기간에는 매일 저녁 선교부흥회가 열리며, 주일 오후에는 1선교지역의 문화와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선교박람회'가 마련된다.

선교박람회에서는 선교지역별 부스와 문화 체험, 음식 등을 통해 성도들이 각 선교지를 보다 가까이 접하고 선교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오랜 시간 선교 현장을 지켜온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회는 대회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선교대회가 끝난 뒤인 10월 5일부터 9일까지는 4박5일 일정의 엔세나다 크루즈 선교사 수련회를 마련한다.

바쁜 프로그램보다 휴식과 교제에 초점을 맞춰 선교사들이 잠시 사역의 무게를 내려놓고 재충전한 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가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산이 있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일하는 사업장과 직장, 환자를 돌보는 병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가정까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다.

국 목사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땀 흘려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며 선교적 삶을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선교대회는 세계 17개국의 선교 현장을 교회 안으로 불러오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삶의 선교 현장으로 다시 파송하는 의미도 지닌다.

충현선교교회가 지난 41년 동안 걸어온 선교의 역사는 이제 또 다른 출발점 앞에 서 있다.

앞선 세대가 받은 부르심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다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된다.

1985년 교회 설립과 함께 시작된 선교의 비전은 1989년 첫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다.

2026년, 그 선교의 역사를 이어온 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그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디딤돌 삼아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국윤권 목사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강조하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삶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생명을 살리고, 다시 꽃피우는 삶.

지난 41년간 세계 곳곳에서 이어져 온 충현선교교회의 선교가 이제 '역사를 넘어 새일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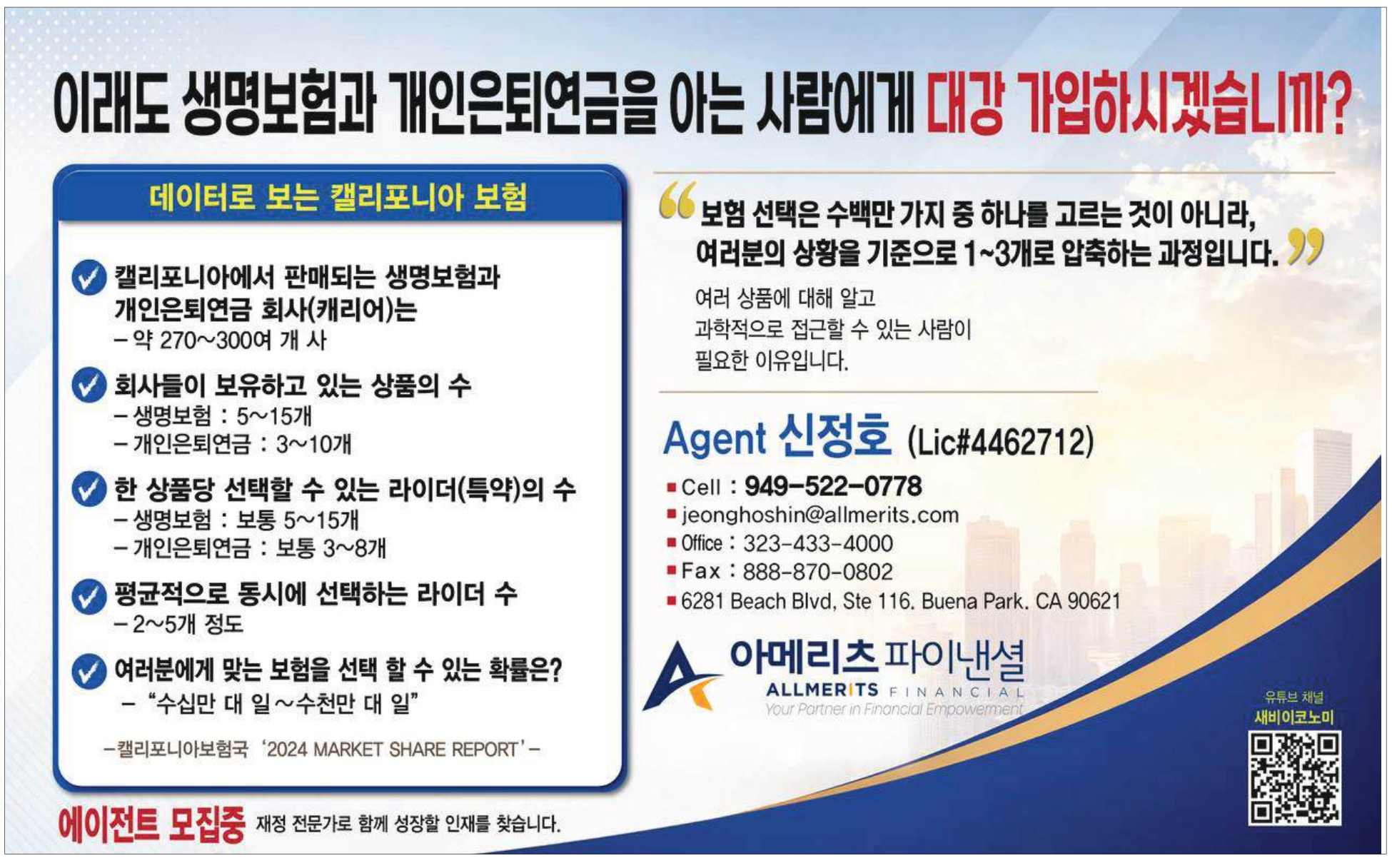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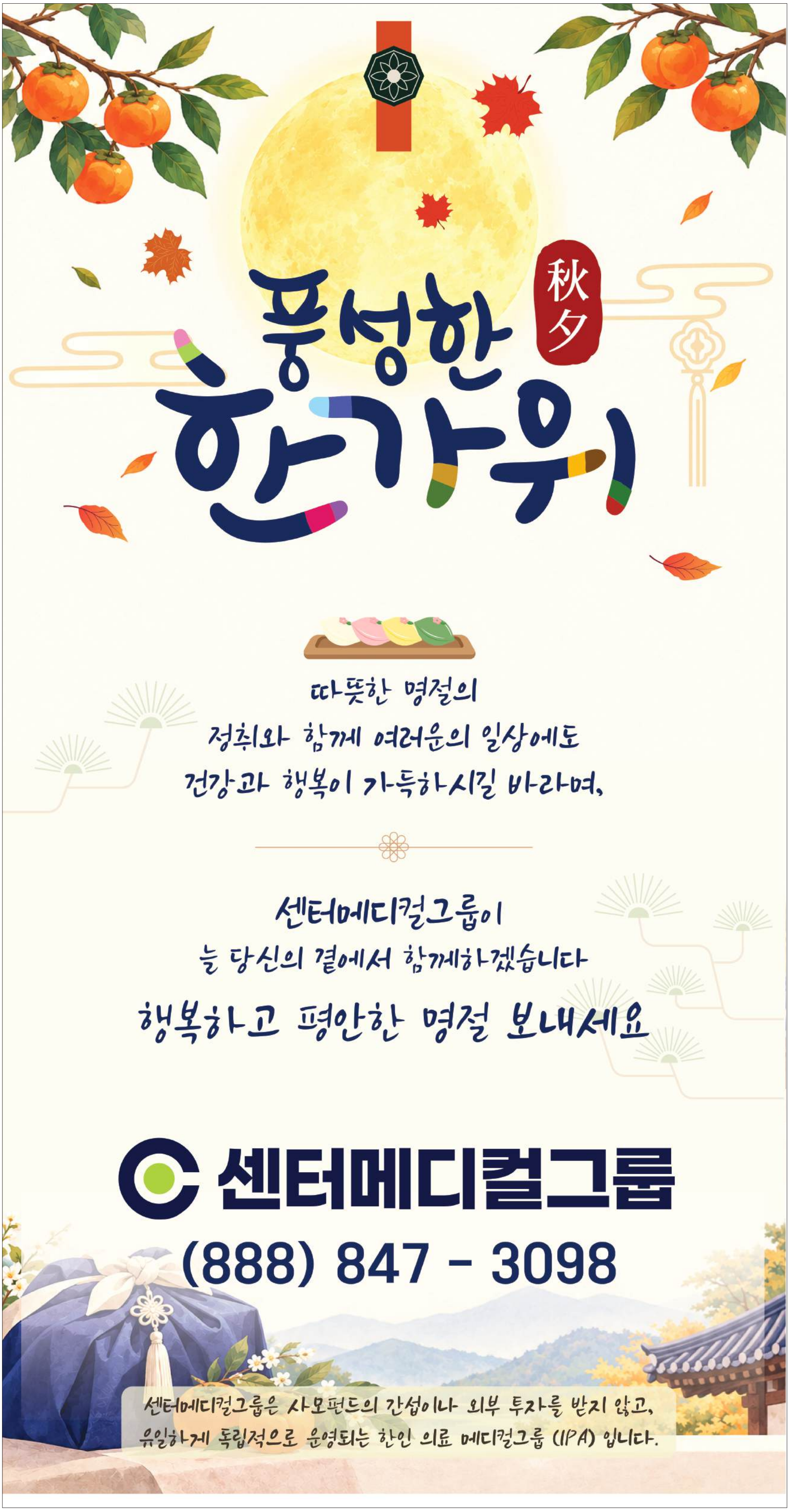
충현선교교회 선교사들. 17개국 선교지에서 선교사 32명, 자녀 5명이 참석한다. ⓒ 충현선교교회








秋夕
풍성한
한가위
따뜻한 명절의
정취와 함께 여러운의 일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센터메디컬그룹이
늘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세요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 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 “희생적 사랑은 오직 인간만… AI는 선교 도구로”

### 한국창조과학회 45주년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하주헌)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온누리교회에서 ‘AI 시대, 창조과학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45주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개회예배와 주제강연을 필두로 일반 세션, 전문가 세션, 청소년 세션, 어린이 세션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강단에 오른 박성진 한동대 총장은 ‘AI 시대 미래 교육과 창조과학 플랫폼 비전’을 주제로, 기술 패권 경쟁과 교육 패러다임의 급변 속에서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거시적 방향을 짚었다. 박 총장은 “교육의 진정한 본질은 정체성과 지식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달하는 숭고한 영역이며,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과 피조물로서의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가 이성 중심의 일반계시(그리스 사상)와 성경 중심의 특별계시(히브리 사상)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종교개혁이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며 “현재 현대 사회는 유물론과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상에 맞서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며, 유사과학의 폐해를 막기 위해 창조과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AI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편적 지식을 넘어 기술과 인문학이 융합되고 윤리적 사고를 갖춘 다재다능한 인재(Polymath)를 길러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누구나 접근하여 집단 지성을 창출할 수 있는 완전한 상향식(Bottom-up) 구조의 ‘플랫폼 대학’으로 교육의 틀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동대학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막과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창조과학 박물관(Museum)’을 기획하여, 은퇴 선교사와 크리스천 기업, 전 세계 다음 세대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비즈니스 선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박형진 교수(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 교수)는 21세기 첨단 기술의 혁신 속에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근원적으로 묻는 신학적 인간론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박 교수는 “인간은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영원과 초월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창조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며, AI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원천으로 오직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극대화하려는 AI는 철저히 ‘인간의 형상(Imago Hominis)’을 반영한 결과물에 불과하며, 우리가 이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할수록 인간 고유의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검색 알고리즘에 넘겨버리는 뼈아픈 ‘사고의 외주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세번째 발제자로 김광 교수(시립인천대학교 교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나 과도한 기술 낙관주의를 모두 경계하며, AI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인 ‘성경적 신호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AI는 결코 생명력을 지닌 미지의 새로운 지성이 아니며, 과거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으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했듯 인간의 지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식 정보 처리를 자동화하는 ‘도구 혁명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AI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속 학계의 다수 합의(Consensus) 데이터를 대량 학습하여 진화론 등을 확정된 진리로 출력하는 짙은 세속적 편향성을 상속받기 때문에 철저한 비판적 수용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뇌 정보를 업로드해 디지털 영생을 좇으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을 거세게 비판하며, “디지털 영생 추구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AI 우상화에는 단호하게 ‘빨간불(멈춤)’을, AI의 편향성과 환각(Hallucination) 현상에는 ‘노란불(주의)’을, 복음 전파와 청지기적 사명을 위한 지혜로운 선용에는 ‘초록불(진행)’을 켜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연산과 지식 검색은 기계에게 온전히 내어주더라도, 창조주와의 인격적 교제, 영적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한 희생적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자 사명”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단체사진 촬영 모습. ©한국창조과학회

# “PC주의자들이 주도한 ‘프레임’에, 다수가 ‘No’ 외쳐야”

한국성과학연구원(회장 민성길, 성과연)은 지난 19일 한신인터벨리에서 9월 월례강좌 ‘PC의 실체와 종말’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태정 대표(노태정 TV)는 서구 문명을 세운 가치관과 이를 파괴하려는 정치적 올바름(PC)의 본질,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노태정 대표는 “서구 문명은 인종, 종교, 언어가 아닌 ‘가치관(ideas)’에 기반하여 세워졌다”라며 “그 가치관의 핵심은 절대적 도덕과 보편적 인권, 자유의지 등을 파생시킨 ‘예루살렘의 계시(종교)’와 이성을 활용해 선(virtue)을 추구하는 ‘아테네의 이성’의 결합”이라고 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의 목적론을 언급하며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처럼 이성을 활용해 지식의 빛을 동굴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인간의 핵심 의무였다”라고 했다.

노 대표는 “이러한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이성으로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과학 혁명으로 이어졌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존 로크의 자연법을 통해 미합중국 건국의 근간이 됐다”라고 했다. 그는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18세기 미국의 국부들은 정부에 관한 새로운 과학(new science of government)을 만들어 낸 ‘천재들의 시대’를 살았다”라며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치관에 기반해 세워진 신조형 국가(credal nation)이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unalienable rights)를 부여받았음을 독립선언서에 명시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헌법 설계에 담긴 인간관을 강조했다. 노 대표는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헌법이라는 사슬로 정부의 해악을 묶어 둬야 한다’고 했고, 제임스 매디슨은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며 “권력의 분산과 견제, 균형을 통해 일부러 고착상태(gridlock)를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인 “정서와 교육적 배경을 놓고 본다면, 저는 미국인입니다”라는 대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역시 이 위대한 자유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명을 파괴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노 대표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진지전(War of positions)’ 개념을 지적했다. 그는 “PC주의자들이 언론, 예술, 스포츠, 기업, 학계, 과학계 등을 장악한 핵심 수단은 바로 ‘재정상화(Renormalization)’”라며 “불과 20% 정도의 고집불통 소수(intransigent minority) 극단주의 세력만 힘을 합쳐도 이른바 ‘티핑 포인트’를 넘겨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대중의 ‘뉴 노멀(new normal)’로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노 대표는 대학가가 문화 막시즘에 잠식된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2020년 하버드 크림슨 조사에서 교수의 79.7%가 자신을 ‘리버럴’ 또는 ‘매우 리버럴’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주의자는 1.46%에 불과했다”라며 “미국 31개 주 대학 교수 약 2천 명의 정치 단체 기부 내역을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기부 비율 차이가 무려 95대 1에 달한다”라고 했다.

과학 및 의학계의 무너진 현실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브라운대 교수가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발성 성불쾌감(ROGD)’이 전염되고 있다고 연구 결과를 냈다가 기존 좌파 내러티브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사퇴했다”라고 했다. 덧붙여 “미국의사협회는 ‘성별은 의사들이 신생아들에게 임시로 배정하는 것’이라 배격하고, 뉴잉글랜드의학저널은 출생 증명서에 성별 표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심지어 2026년 9월 무렵의 최신 AI 마저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도록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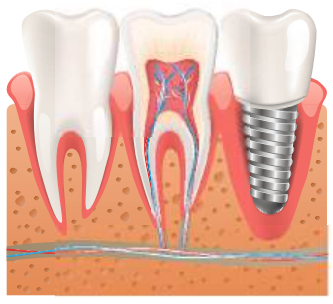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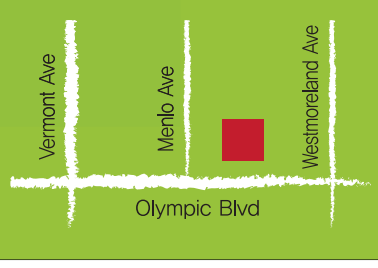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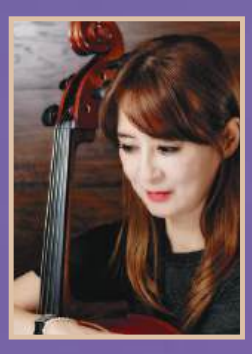


# 레위성가단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지휘 강정엽



첼로 이수정



소프라노 윤예원



2026. 10. 10 (토), 5:00PM

**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
**Kennedy High School**
8331 Walker St., La Palma, CA 90623
문의: 조신천 단장 Tel: (714) 323-7420

# 성경교사 박진영 씨에게: 말씀의 불꽃 지피되, 신비 앞에 신을 벗기를



박진영 대표의 성경강의 썸네일. ⓒ유튜브

## [칼럼] 선명한 논리보다 더 강력한 것은

화려한 무대와 치열한 경영 현장을 지나, 칠판 앞에서 분필을 쥔 채 땀을 흘리며 성경구절을 짚어 내려가는 당신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중문화의 정상에서 인간의 욕망과 허무를 누구보다 깊이 체감했을 한 영혼이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고, 그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이웃에게 증언하고자 나선 열정과 용기 자체는 그 누구도 가벼이 폄훼할 수 없습니다.

제도권 교회가 평신도를 수동적인 청중으로만 묶어두고 영적 갈증에 시원한 물 한 모금 내어주지 못할 때, 텍스트 자체와 온몸으로 씨름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그 진정성은 오히려 기성 교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개인이 치열하게 깨달은 복음의 감격을 세상 속에 나누는 행위는 억누를 것이 아니라 마땅히 격려받아야 할 은혜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열정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기 위해, 동역자이자 같은 구도자의 마음으로 건네고 싶은 몇 가지 조심스러운 권면이 있습니다.

**1.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

당신의 강의는 명료하고 수학 공식처럼 빈틈이 없습니다. 모호함을 걷어내고 복음의 논리적 뼈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이 읽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위험이 자라납니다.

자신의 역할이 진리를 창조하거나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흘려보내는 연약한 '도구'라는 사실을 안다면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100% 해체하고 조립해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명쾌한 논리의 영역뿐 아니라, 피조물이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신비'와 '역설'의 영역이 공존합니다.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결해주겠다는 과도한 확신은 자칫 성경의 한쪽 단면만을 절대화하여 다른 중요한 계시들을 도려내는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전달자는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앎은 여전히 부분적이며 하나님은 나의 이해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고백하며 신비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 2천 년 교회사와 신학적 전통이라는 안전장치**

오랜 기간 축적된 기독교의 신학적 유산은 자유로운 성경 읽기를 가로막는 교조적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단적 왜곡과 삶의 격랑 속에서 피 흘려 지켜낸 '안전 난간'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묵상에만 의존해 텍스트를 직통으로 해석하려 들면, 교회사 속에서 이미 수없이 검증되고 오류로 판명 났던 극단적 해석의 함정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기 쉽습니다. 홀로 걷는 길은 빠르고 독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오랜 숨결과 교류하지 않는 독주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3. 지식의 전달을 넘어 삶의 전인격적 열매로**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 퍼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말은 논리적 정교함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삶에서 배어 나오는 사랑, 온유, 인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의 무게에서 권위를 얻습니다.

구원의 지적 확신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구원이 오늘의 고통스러운 삶과 타인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육화(肉化)돼야 하는지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 당신이 쥔 분필은 차가운 교리의 잣대가 아니라, 갈급한 이들을 향한 따뜻한 초대장이 돼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 타오르는 불꽃을 끄지 마십시오. 다만 그 불꽃이 온전한 생명의 빛이 되도록, 자신이 연약한 도구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겸허한 낮아짐과 신비 앞에서의 거룩한 떨림을 품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깊은 영성과 균형 잡힌 안목을 지닌 참된 스승과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맹점을 짚어주고, 때로는 지나친 확신을 사랑으로 제어해 주며,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줄 멘토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구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논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자신이 다 알지 못함을 고백하면서도 좋은 길잡이의 손을 잡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성경교사의 뒷모습일 것입니다.

이든. 제주 아틀리에 공유교회, 아삽하우스

# 러시아, 박태연 선교사 재판 재개… 9월 24일 선고 가능성

## '극단주의' 프레임 씌우려는 의도 보여

러시아에서 33년간 어린이 사역을 해오다 은퇴를 일주일 앞두고 체포된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판결은 법원 인력 문제와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 요청으로 지연됐으며, 9월 22일(이하 현지시각) 반대 심문이 재개됨에 따라 최종 판결은 10월 8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해 감시단체인 한국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VOM)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검찰의 반대 심문 과정에서 전체 질문의 약 70%가 박 선교사의 종교적 활동 및 신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선교사는 지난 1월 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비자 만료 후 체류 등 3가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체류 기간 초과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지나이다 우스티노바(Zinaida Ustinova)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VOM 대표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검사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이민법과 관련 없는 종교적 질문을 쏟아냈다"며 "어린이전도협회(CEF), 러시아 복음주의 신앙 기독교인 연합 등 관련 단체의 핵심 교리와 기도 내용, 설교 규칙, '지상대명령'의 의미까지 추궁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도 재판부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폴리 목사는 "러시아 당국이 직접적인 질문 대신 일반적인 종교 신념에 관한 질문을 던진 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만 진리라고 믿는지' 혹은 '국가 법률을 무시하는지' 등을 판단해 '극단주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선교사는 체포 당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성경 암송을 강요하며 해외로 데려가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에는 박 선교사가 소속된 '어린이전도협회'가 러시아 연방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VOM 측은 "현지 언론에 공개된 영상 속 아이들은 강요나 세뇌의 기색 없이 웃으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와 서적,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도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압박이나 강요를 받지 않도록 교육하고, 부모와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어린이전도협회는 75년 이상 부모와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발적 프로그램만 운영해 온 공개적 단체"라며 "러시아 당국은 33년간 헌신한 70세 선교사에게 악의적인 혐의를 씌워 종교의 자유 박탈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VOM은 박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펼쳐 한국에서 4,000여 명, 미국·영국·브라질·일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1,000여 명 등 총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탄원서를 전달했으며, 외교부와 유엔(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도 관련 내용을 접수한 상태다.

신미쉘 기자



# 9·11 당일 '빈 라덴 발언' 성직자에 상 캔터베리 대주교 사퇴 청원 확산

영국 성공회 수장인 사라 멀럴리 캔터베리 대주교가 오사마 빈 라덴을 찬양한 전력이 있는 무슬림 성직자에게 상을 수여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주교의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수천 명이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청원 작성자 엠마 애시는 지난 18일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업데이트를 게시하며, 멀럴리 대주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에 주말 사이 서명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멀럴리 대주교가 영국 성공회의 첫 여성 수장으로 취임한 지 약 8개월 후인 올해 초 처음 제기됐다.

애시는 업데이트에서 "이 청원이 시작된 이후 영국 성공회 최고위층의 판단과 사전 검증, 책임성,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것은 멀럴리 대주교가 지난 9월 11일, 9·11 테러 25주년 당일 파키스탄의 무슬림 성직자 하피즈 무함마드 타히르 메무드 아슈라피에게 '위베르트 월터 화해 및 종교 간 협력상(Hubert Walter Award for Reconciliation and Interfaith Cooperation)'을 수여한 일이다. 아슈라피는 파키스탄의 종교적 소수자, 특히 기독교인들을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시는 아슈라피가 과거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시에 따르면 아슈라피는 2007년 빈 라덴을 가리켜 "이슬람의 고귀한 칭호인 '사이풀라(Saifullah)'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풀라는 '하나님의 검(Sword of God)'이라는 의미다.

다만 아슈라피 측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빈 라덴을 지지하거나 찬양한 것이라는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약 3,000명이 사망했다. 멀럴리 대주교는 9·11 테러 25주년 당일 아슈라피에게 상을 수여한 뒤, 그가 파키스탄 내 종교적 소수자, 특히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는 논란이 불거진 지 약 일주일 만에 해당 상을 철회했다.



사라 멀럴리 신임 켄터베리 대주교. ⓒ람베스궁

애시는 상 철회와 별개로 "특히 9·11 25주년이라는 시점에 이러한 영예를 수여하기 전에 어떤 사전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논란이 영국 성공회 최고위층의 검증 절차와 함께 "학대와 테러, 제도적 실패를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경청되고 있는가"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애시는 지난 20일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주말 동안 청원 서명이 3,000건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기준 해당 청원에는 3,7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 청원에는 이번 상 수여 논란 외에도 멀럴리 대주교가 런던교구 주교로 재직하던 당시의 성직자 보호 및 교회 내 학대 대응과 관련한 문제도 포함됐다. 청원은 영국 언론이 보도한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세이프가딩(safeguarding) 문제'를 언급하며, 멀럴리 대주교가 런던교구 주교로 재직하던 시기의 사건들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런던교구 세이프가딩팀에서 근무했던 미셸 번스다. 번스는 교회 내 세이프가딩 문제를 제기한 이후 자신이 심각한 개인적 피해를 입었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소개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앨런 그리핀 신부의 사망 사건이 언급됐다. 청원은 그리핀 신부의 사건을 멀럴리 대주교가 런던교구 주교로 재직하던 당시 교구 내 돌봄과 세이프가딩, 책임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미경 기자

# 中 공산당, 'PO7' 딩 목사 고문 신앙 핍박 잔혹상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워싱턴 D.C.의 한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의 잔혹한 종교 탄압 실상이 한 목사의 육성을 통해 생생하게 고발됐다. 중국 청두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의 딩슈치 목사는 'PO7'이라 불리며 겪었던 끔찍한 고문과 박해 경험을 담담히 증언하며, 이는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경고했다.

딩 목사가 소속된 이른비언약교회는 2018년 12월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당시 100명 이상의 교인이 체포·구금되며 국제 사회에 알려졌다. 설립자 왕이 목사는 2019년 '국가 권력 전복 선동' 및 '불법 영업' 혐의로 비공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딩 목사는 2018년 12월부터 약 5개월간 구금되어 2019년 5월 7일 보석 석방되기 전까지 혹독한 고문을 겪었다. 그는 구금 중 'PO7'이라는 번호로 불렸으며, 특히 2주 동안 '용이 기둥을 움켜쥔 자세'로 고문당했다고 증언했다. 구금 기간 중 변호사나 가족 접촉은 물론 성경 소지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2023년에도 2주간 재구금되었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인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공산당의 탄압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딩 목사는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며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경고하며, 개별 교회를 넘어 중국 가정교회 전체가 예배 방해와 지도자 연행 등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이른비언약교회를 향한 공산당의 탄압은 2026년에도 이어졌다. 지난 1월 6일 대규모 단속이 발생하여 장로 리잉창과 설교자 다이즈차오가 체포됐다. 이들은 2월 12일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정식 체포되었으며, 특히 다이 목사는 체포 직후 출산한 아내의 아이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어 독자의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 집사 자쉐웨이도 당국에 의해 통제된 인물로 확인됐다.

종교자유연구소(RFI),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차이나에이드(ChinaAid)가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서 딩 목사는 「종교의 자유가 첫 번째 자유이자 인권의 토대」라고 역설하며, 시진핑 주석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중국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세계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인지해야 한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의 순교적 신앙은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물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을 요구한다. 딩 목사의 용기 있는 증언이 국제 사회의 무관심을 깨고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 또한 기도로 연대하고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산당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정교회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으며, 오히려 박해가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더 큰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될 것임을 믿는다.

강지선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권)
새벽예배: 화-토( 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 프랑스 개신교 양대 연합기구, 대화·협력 상설기구 설립 합의



ⓒUnsplash/Rodrigo Kugnharski

프랑스의 양대 개신교 연합기구 지도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전례 없는 회의로 평가했다.

프랑스개신교연맹(FPF)과 프랑스복음주의협의회(CNEF)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지중해 연안 항구도시 세트에 위치한 라자레 도메인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서로를 "프랑스 개신교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표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신교계 대표성에 대한 오랜 의문과 일부 사안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 속에서 마련됐다. 유럽 복음주의 매체인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두 기구 모두 프랑스의 공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각자의 교단과 교회들을 대신해 정치권과 직접 접촉해 왔다.

새롭게 설립되는 협의체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화와 협의, 행동'을 추진하게 된다. 공동성명에는 공동 대응 분야로 △교목·원목 등 채플린시 사역 △기본적 자유의 수호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 등이 제시됐다.

회의 일정은 양측이 공동으로 정하며, 각 기구의 고유한 정체성과 사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측 대표단은 "과거의 오해"를 넘어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러한 관계가 "복음과 공동선을 위해 각 기구의 고유한 사명과 소명의 정당성을 존중하는 것"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개신교연맹은 1905년 설립된 기구로,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일부 침례교 교단 등 프랑스의 역사적 개신교 교회들을 대표해 왔다.

2010년 설립된 프랑스복음주의협의회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소속돼 있으며, 오순절교회와 침례교회, 형제교회 등 독립 복음주의 교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는 CNEF가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프랑스 교회의 약 70%를 대표한다고 전했다. 복음주의자들은 프랑스 전체 인구 약 6,900만 명 가운데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은 각자의 목적과 위임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프랑스개신교연맹은 이번 세미나가 연맹 평의회가 추진해 온 개방성 확대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총회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연맹 운영 참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CNEF 지도자들은 대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개신교연맹과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각 기구의 활동과 조직 운영을 소개했으며,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와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피에르 블랑자 목사는 이틀간 기도회를 인도하며 영적 지도 역할을 맡았다. 공동성명은 회의 분위기를 경청과 겸손, 형제적 존중이 어우러진 자리로 평가했다.

대표단은 프랑스 개신교 내부의 다양성도 인정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전통의 공존과 상호 보완이 개신교계의 "풍요로움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CNEF에서는 에르완 클로아레크 회장과 얀 앙투안 부회장, 필리프 모네리 부회장, 클레망 디드리히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FPF에서는 크리스티앙 크리거 회장과 발레리 뒤발-푸졸 부회장, 장-레이몽 슈타우파허 사무총장, 지역 발전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 위원 마르크 프리치가 참석했다.

양측 지도자 8명은 공동성명에 모두 서명했으며, 성명은 지난 9월 14일 공개됐다.

이미경 기자

# 美 내슈빌 70인 팀, AI로 성경 전체를 음악으로 제작

미국 내슈빌을 기반으로 한 70명의 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경 전체를 음악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목회자인 아버지의 요청으로 성경 한 장을 음악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28세 미카 피히터(Micah Fiechter)로부터 시작됐다. 피히터는 이후 프로젝트를 확대해 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로 성경 전체를 음악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약 1년에 걸친 작업 끝에 성경 전체를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들을 수 있는 앱 '뮤직 바이블(Music Bible)'이 출시됐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본문을 11개 음악 장르로 들을 수 있다.

제작진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성경 본문에 대한 충실성이다. 컨트리, 힙합, 재즈, 팝, 록을 비롯해 '운동(Workout)' 음악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장르는 다양하지만, 성경 본문 자체의 단어는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영어 버전에서는 11개 장르를 제공하며, 스페인어 버전에서도 3개 장르를 지원한다. 제작진은 현재 추가 언어와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피히터는 사용자들이 가장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장르 가운데 하나로 힙합을 꼽았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피히터는 "성경은 조용히 책장에 꽂혀 있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들려지기 위해 주어졌다"며 "사람들이 팝송의 가사를 외울 수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성경 말씀도 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뮤직 바이블'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피히터는 영어 성경 번역의 선구자인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의 사역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뮤직 바이블 프로젝트는 향후 실제 음악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AI를 활용해 제작된 음악을 기반으로 향후 실제 아티스트들이 성경 본문을 음악으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에이미 그랜트(Amy Grant), 마이클 W. 스미스(Michael W. Smith), 리치 멀린스(Rich Mullins) 등의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해 온 음악 프로듀서 마이클 블랜턴(Michael Blanton)도 뮤직 바이블의 총괄 프로듀서로 합류했다.

이미경 기자

# 英 종교교육,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에게 더 긍정적 영향

영국의 종교교육(RE·Religious Education)이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의 신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삶 속 신앙의 영향 연구소(The Institute for the Impact of Faith in Life·IIFL)'의 의뢰로 휘트스톤(Whitestone)이 실시했다. 최근 10년 이내 종교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자녀가 종교교육을 받고 있는 영국 성인 가운데 자신의 종교가 있다고 밝힌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기독교인 응답자의 32%는 종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반면 비기독교인 가운데서는 46%가 종교교육이 자신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지역 신앙공동체와의 교류를 종교교육에 더 많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기독교인의 50%가 지역 신앙공동체와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기독교인은 36%였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역 신앙공동체와의 교류 확대는 현재 종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종교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56%는 자신 또는 자녀가 받은 종교교육이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답했으며, 부정적인 경험이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종교교육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70%가 자신 또는 자녀가 받은 교육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실적으로 정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였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라니아 모히우딘-아기르(Rania Mohiuddin-Agir) IIFL 연구원은 종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 깊이 있는 참여에 대한 요구가 확인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고 비판받아 온 과목인 종교교육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돼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교육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신앙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원주의 사회인 영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가 처음으로 종교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종교교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 정부는 종교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영국 전국종교교육교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RE) 케이티 프리먼(Katie Freeman) 회장은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했다.

프리먼 회장은 종교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른 교과목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종교교육의 질과 제공 수준이 달라지는 이른바 '우편번호 복권(postcode lottery)'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경 기자

# 파키스탄 인권 변호사 부부, 대법원 보석 직후 다른 혐의로 재체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부부가 대법원의 형 집행 정지 및 보석 결정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른 혐의로 전격 재체포됐다고 9월 18일 보도했다.

현지 사법 당국이 대법원의 석방 명령 직후 해묵은 별건 혐의를 적용해 인신을 구속하면서 사법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경찰은 이만 자이나브 마자리-하자르와 하디 알리 차타 변호사 부부를 불법 집회 가담 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해 대테러 법원(ATC)에 송치했다. 대테러 법원의 아불 하스나트 무함마드 줄카르나인 판사는 경찰의 30일 구속 수사 요청을 기각하고 14일간의 사법적 구금을 명령했다.



파키스탄의 인권 변호사 이만 자이납 마자리-하지르와 남편 하디 알리 차타의 모습. ⓒUN Human Rights

앞서 나임 아크타르 아프간, 이쉬티아크 이브라힘 대법관으로 구성된 파키스탄 대법원 재판부는 같은 날 부부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사건 관련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20만 루피(약 720달러)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난 1월 내려진 유죄 판결의 효력을 중단시켰으나, 경찰은 석방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부부를 억류했다.

이번 재체포에 적용된 혐의는 이들 파키스탄 인권 변호사 부부가 과거 불법 집회에 참여해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5년 3월 코사르 경찰서에 접수됐다.

부부의 재체포 소식에 가족과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마자리-하자르의 모친이자 전 파키스탄 연방 인권부 장관인 시린 마자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석방 관련 서류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경찰이 아디알라 교도소 내부로 진입해 부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정의가 아닌 당국의 복수심에서 비롯됐으며, 법적 조치 과정에서 기본적인 적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도 파키스탄 사법 당국의 조치를 심각한 인권 탄압으로 규정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국장인 바부 람 판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재체포가 부부의 인권 옹호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혐의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조건 없는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현지 법조계와 인권 운동가들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규탄에 동참하고 있다. 리다 호사인 변호사는 이들 부부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 사태가 파키스탄의 법치주의 훼손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지적했다.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파키스탄 인권 변호사 부부를 향한 사법 당국의 구속 시도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파키스탄 내 인권 탄압 및 사법 정의를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다니엘 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마지막주) 오후 11:00 / 새벽예배 오전 5:20 (화-금) 오전 6:00 (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e.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r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10 / 3부예배 오전 12:00 / 금요예배 오후7:3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 AM / 주일 2부 9:30 AM (각 교육부 예배) / 주일 3부 11:20 AM (각 교육부 예배)
수요경배와찬양 (수) 7:30 PM / 새벽예배 (월-금) 5:30 AM / (토) 6:00 AM
한어청년부 1:30 PM / 영어대학부 2:00 PM
EM(dscp) 1부 9:30 PM / 2부 11:00 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 유년부 (K-2) 오전 10:30 /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 유아, 유치부 오전 11:00 / 초.중.고등부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213) 999-9298 www.nachimban.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 주일 2부 오후12:00 /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 주일2부예배 오전11:00 / 유아유치부 오전11:00 /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후 10:30 /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 주일 2부 9:30AM / 주일 3부 11:15AM /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 수요기도회 7:30PM /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아노인팅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초등부(3-5) 오전 10:30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 주일 EM예배 오후 12: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 새벽기도 월-금 오전5:30 / 토 오전6:00
이충환 담임목사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1부 오전 9:00 /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 EM예배 오전11:00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오전11:00 /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 주일 2부 예배 1:30 PM / 수요예배 7:00 PM /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 주일학교 오전 11시 /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 금요예배 저녁 7시 /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rkpc.net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1:30 / 중고등부 오전 11:30
청년부 주일 오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홍경헌 담임목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2 S. Pecos Rd, Henderson, NV 89074
T. (702)304-0324 / http://hendersonk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렌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첫열매들’ 교리 · 신학적 배경 설명

➔ 1면 기사 〈박진영〉에 이어서

◈ “회개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통해 영생 얻어”

박 씨는 첫열매들 교회의 구원관에 대해 “영생은 회개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선물로 받는 신비하고 완전한 믿음을 통해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빗대어 설명했다. 예수께서 믿는 이들의 남편이자 대표로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보신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약속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주장했다.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탕자의 비유로 풀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걸음을 옮기는 것은 회개에,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하지만,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그 시점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앙 경험도 소개했다. 박 씨는 2010년 성경 공부를 시작한 뒤 믿으려고 노력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으나, 2017년 4월 성경을 읽던 중 의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자신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경험으로 설명했다.

박 씨는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침례에 앞서서도 예수께서 자신의 죗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믿음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전통으로는 웨슬리안 감리교를 꼽았다. 박 씨는 회개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믿음의 관계에 관한 자신의 설명이 웨슬리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 “구원 상실 여부는 시대에 따라 달라”

구원 상실 가능성에 대해 박 씨는 현재를 ‘이방인들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잘못 살면 징계를 받고 벌도 받지만 지옥에는 안 간다”며 이것이 첫열매들 교회의 교리라고 밝혔다. 그는 성경에 구원 상실을 경고하는 것으로 읽히는 구절과 구원의 보장을 말하는 구절이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해하려면 바울서신 13권과 그 밖의 성경 53권을 구분하고, 각 본문이 적용되는 시대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 영향을 준 인물로 피터 럭크만을 지목했다. 박 씨는 럭크만의 저술을 공부하면서 시대에 따라 구원 상실 여부를 다르게 설명하는 해석을 접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상적 배경으로 클라렌스 라킨, 스코필드, 존 넬슨 다비도 언급했다.

그는 첫열매들 교회가 전천년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대와 그 이전, 휴거 이후의 7년 환란 시대를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이를 잃지 않지만, 자신이 ‘유대인들의 시대’로 분류한 시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럭크만 계열의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와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럭크만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믿음을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구원 상실 여부에 관한 영향을 받았더라도 이를 설명하는 대속의 원리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성경 번역본에 관한 입장도 구분했다. 박 씨는 첫열매들 교회 역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하지만, 킹제임스 성경만을 참된 번역본으로 보고 다른 번역본을 부정하는 럭크만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할례자 · 무할례자 복음’ 구분… “한 시대에는 한 복음 적용”

박 씨는 첫열매들 교회가 영향을 받은 기존 신학적 흐름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대속에 관한 두 가지 설명의 차이를 제시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넘겨받아 대신 죽었다’는 설명과 ‘예수께서 성도의 남편이자 머리로 죽었기 때문에 성도도 함께 죽었다’는 설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수와 성도를 한 몸으로 보고, 성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울서신 13권에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대속 설명을 각각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과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2장을 제시했다.

➔ 3면 기사 〈KPCA 서노회〉에 이어서

그는 “서노회와 서남노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지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럼에도 일터에서 일하며 자비량으로 목양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와 눈물 어린 모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가 통합되면서 자립교회뿐만 아니라 자립 중인 교회도 노회와 함께 어려운 미자립교회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목사님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우 목사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통합 서노회를 이끌어갈 임원진도 구성됐다. 노회장에는 우상립 목사(영원한기쁨교회)가 선임됐으며, 목사 부노회장에는 조준석 목사(예수생명팀교회), 장로 부노회장에는 이서홍 장로(웨스트힐장로교회)가 각각 선임됐다.

서기에는 강승배 목사(참빛장로교회), 부서기에는 김용호 목사(겟세마네교회), 회의록 서기에는 이순애 목사(좋은소식교회), 회의록 부서기에는 신용환 목사(주님세운교회)가 맡게 됐다. 회계에는 전홍권 장로(가나안교회), 부회계에는 한용배 장로(갈보리믿음교회)가 선임됐다.

한편 통합 서노회 제107회 정기노회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15일 오전 10시에는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이번 정기노회는 두 노회가 통합 이후 처음으로 함께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오는 27일 오후 5시에는 가나안교회에서 서노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 53주년 찬양의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 어떤 것은 시간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워집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김신회 작가의 책, 『꾸준한 행복』에 나오는 첫 번째 글의 제목이 〈위대한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지루함이 위대하다'는 작가의 표현이 제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루해져도 휴대전화를 집어 듭니다. 채널을 바꿉니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식당, 새로운 책,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지루함은 피해야 할 적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지루함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지루함 자체'라기보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면 삶은 오히려 얕아집니다. 피상적이 됩니다. 반대로 반복과 훈련의 지루함을 견디면 삶은 깊어집니다.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지루함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루함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위대함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면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루함을 견디며 한 우물을 파면 삶은 깊어집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선한 잠재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렇게 한길을 오래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피아니스트는 같은 음계를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골프 선수는 같은 스윙을 수백 번 반복합니다. 수영 선수는 같은 레인을 수천 번 오갑니다. 사진작가는 한 장면을 찍기 위해 며칠 동안 기다립니다. 화가는 같은 대상을 오래 바라봅니다. 작가는 매일 아침 같은 책상에 앉습니다. 목회자는 같은 성경을 펼치고,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반복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을 통해 자랍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드러난 탁월함을 봅니다. 하지만 그 탁월함을 만들어 낸 무대 뒤의 시간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승의 순간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위해 지루함을 견뎌 낸 반복된 훈련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진 이전에 찍힌 수천 장의 평범한 사진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책을 봅니다. 하지만 박수도 인정도 없는 수백 번의 아침을 홀로 견딘 작가의 시간은 보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성품을 낳습니다. 성품은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 반복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말씀 묵상의 비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주야로, 다시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는 한 번에 배울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머리에 머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복에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반복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빠진 채 같은 행동만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기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기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기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영성 훈련도 기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에는 반드시 진실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진실함이란 익숙한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익숙한 것 앞에서 새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첼리스트 요요 마(Yo-Yo Ma)는 "초심자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 어떤 연주를 했든 오늘의 연주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계적인 반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마합니다.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오랫동안 해 온 일을 초심을 품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성숙의 비밀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익숙함이 경이로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강렬함보다 강합니다. 많은 사람은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합니다. 위대한 삶은 가끔 찾아오는 강렬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는 꾸준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지루함이 위대한 반복을 만날 때 빛을 발합니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깊은 심심함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활동에서 벗어난 깊은 심심함은 새로운 것을 잉태하는 창조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위대한 지루함과 깊은 심심함을 친구 삼아, 조용히 하던 일을 새 마음으로 반복합니다. 위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날들을 충실하게 반복하는 동안 조용히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위대한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에게 위대한 깊이가 선물됩니다.

김창환 칼럼

# 복음서에서 본 안드레의 신앙행적



김 창 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안드레는 그리고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뜻으로 '프로토클레토스(그리스어: πρωτόκλητος, 라틴어: primovocatus, 러시아어: первозванный)'라고도 한다. 안드레는 어부, 생선 장수, 밧줄 만드는 사람이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베드로의 형제이다. 그는 요단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연안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방에서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형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어부로 살았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십니다" 라고 했다. 안드레는 그리스,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이며, 키예프에 가서 선교했다는 전승 때문에 루스인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러시아 최고 훈장 이름이 사도 성 안드레 훈장이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순교한 곳은 그리스 아가야 지역의 파트라이라고 하며, X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기 때문에 X 자 십자가(Saltire)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도 부른다. 십자가가 X 자인 이유는, 안드레가 그리스도(Χριστός)의 첫 글자 모양에 못 박히길 원했기 때문이다. 안드레는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요 1:40).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요 1:41-42).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함을 받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 4:18-19).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마 4:20).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찾아 일하는 제자였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요 6:8-9). 예수님께 인도하는 은사가 있는 제자이다.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요 12:21-22).

복음서 이후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산 제자였다. 성령 강림 이후에 소아시아. 그리스. 불가리아,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AD 70년 그리스 아가야에서 밧줄로 X형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했다.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그리스 북부 지방의 에피루스(Epirus) 등지에서 선교하였고 자신의 후계자로 스타키스 주교를 임명하였다 한다. 70년경 로마 황제 네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의 영향력으로 인해 안드레는 로마 제국의 속주인 마케도니아의 이남 지역인 아가야(오늘날 그리스 전역)의 주파트라스 시에서 체포되어 에게오 총독에게 심문을 받고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했다.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2026

Shalom Center
HUD Approved Housing Counseling Agency

## "목회자는 정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삶은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주택 구입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출은 가능한지,
정부와 각 기관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는 찾기 어려운
목회자의 현실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한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이미 고민 중인 분도,
막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착순 100명
**특별혜택**
교육비 $100 전액 면제
점심식사 및 선물 제공

지금,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등록: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문의: **기독일보** (213- 434-1170)

주최: **샬롬센터** (shalomcenter.net) / 특별후원: **기독일보**

강사: **이지락** 장로 (샬롬센터 대표)

**샬롬센터**는 미국 남가주(LA 및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인 무주택자를 위해 연방정부 공인 주택교육,
1대1 구입 상담, 그리고 시·카운티·주정부의 다운페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센트럴 신학 단상

# 기도하는 마을 Praying Towns



이 연 승 교수
센트럴 신학교

기도는 한국 민족의 장기特技이다.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기독교가 도입되기 전에도, 서낭당에 정화수 떠놓고 새벽을 밝히는 기도, 이규보 같이 당대에 이름을 떨친 출중한 문장가나 선비들이 남긴 기도문 등, 시대를 초월하고 양천良賤을 넘나들며 도처에서 발견되는 기도의 흔적은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면면히 흐르는 기도의 고동소리를 들려준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 James S. Gale 은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쓴 글귀에서 한국인이 드리는 기도의 맥박을 짚어낸다. 고려에 스스로를 "두려움의 자녀" 요 불초不肖한 자로 겸비하는 한 왕의 기도이다. 선조들의 찬란한 유산을 자신의 우매함으로 파손하지 않도록, 숙종의 낭자한 유혈로 암흑에 감추인 사람들의 원한을 풀며, 온 나라 백성에게 두루 덕치德治를 베풀도록 지성을 쏟아붓는 왕의 기도문이다.

사실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도 고동치는 기도의 맥박을 짚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애 말기의 원숙함을 보일 때, 혹은 극한 고난 가운데, 놀랍게도 삼위일체의 오묘함을 기도의 감미로운 포옹으로 연결시키는 신학을 보여준다. 생티리 기욤 (윌리엄) William of St. Thierry 의 아가서 주석은 기도를 성령의 입맞춤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진수성찬에로의 초대로 소개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포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긴밀한 담화를 나누는 만찬장으로 인도된다. 이러한 기도의 이해는 아득히 먼 구중궁궐의 족장 하나님을 향해 투사하는 종잡을 수 없는 욕망의 기복적 기도, 초자연적 영적능력을 구하는 주문, 또는 임박한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 종교행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기욤의 황금서신 the Golden Epistle, 신앙의 신비 the Enigma of Faith 가 일컫는 기도는, 응답여부에 시선이 고정된 기도의 효용성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이제 장애자 자녀를 고쳐달라고 매번 반복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회의를 던지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이다. 히포의 어거스틴 Augustine of Hippo, 아빌라의 테레사 Teresa of Avila, 보나벤투라 Bonaventure, 제네바의 칼빈 John Calvin, 웨슬리 John Wesley, 존 플레쳐 John Fletcher, 잔느 귀용 Jeanne Guyon, 피비 팔머 Phoebe Palmer 등, 성령의 손에 이끌려 오묘한 삼위일체적 교제의 달콤함을 노래한 인물들이 있다. 1738 년 12 월 31 일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휫필드와 60 명의 성도들은 밤새워 기도하며 송구영신을 맞는 중이었다. 새벽 3 시, 1739 년 1 월 1 일의 일을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성령 하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우리들은 넘치는 기쁨의 강에서 더러는 환호성을 울리고, 더러는 마루 바닥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임재에 경외와 놀라움에서 깨어나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런던의 한 모퉁이 페터레인의 철야기도는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생애 말기의 원숙함이란 어쩌면 불필요한 치장이나 완장을 떨구어 낸 시기, 세상 거품이 빠진 후, 액세서리의 퇴색을 직면한 연륜에서 나오는 순수함일지 모른다. 그러나 굳이 생의 말이 아니라도,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며 생의 핵심요소를 더듬을 때 기도의 광채가 선명해지기도 한다. 기도는 안식처일 뿐 아니라, 생의 최고 가치로 부상한다. 미국의 정신적 기원은 단연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청교도에 있다고 한다. 영국 국교도가 버지니아에, 가톨릭이 플로리다에 100 년 먼저 도착했고, 성당도 세웠지만 그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상업적 관심이 우선시되고, 종교는 부차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은 청교도는 미대륙 정착 직후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자녀에게 경건한 신앙을 심겠다는 열망으로 척박한 미대륙에 길을 뚫었다. 메이 플라워 선상에서 두 달여 파도에 출렁인 후 육지에 내린 102 명은 겨울이 지나자 절반이 시체로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자 죽음을 불사하며 거친 항해에 몸을 던진 청교도의 갈망은 광야에 길을 내고 꽃을 피우는 보배요 자원이었다.

1630 년 청교도인들이 보스톤에 닻을 내린 후 교회를 세운 이듬해, 영국 옥스포드 대학을 갓 졸업한 존 엘리엇 John Eliot 이 이 행렬에 동참했다. 청교도인 엘리엇은 기도가 인생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극명하게 표현하였다. 인디언들을 위한 정착촌, "기도하는 마을 Praying Towns"을 세우고, 그 이름에 그의 갈망을 담았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데시 qodesh, 헬라어로 하기오스 hagios 라 했던가. 둘 다 구별됨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전적타자"라 하던가. 엘리엇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성요소가 무엇보다 첫째 구별됨이요, 둘째 기도요, 셋째 공동체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디언을 구별된 기도 공동체에 초청하기 시작했다. 20 년 지나자 14 개로 늘어난 기도하는 마을은 2000 명가량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내틱 Natick, 뉴튼 Netown, 말보로 Marlborough 등에 기도공동체가 세워졌고, 성경의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이름의 마을 지도자가 세워졌다. 엘리엇은 인디언의 알공퀸 Algonquin 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1663 년 출간하였다. 이들 인디언들은 기욤의 기도를 향유했을까? 적어도 그 지향은 19 세기 중반에 등장한 인디언 보호구역 Indian Reservation 과는 판이했다.

비둘기가 아닌 미사일이 중동의 창공을 뒤덮고, 스페인 한 복판은 검붉은 불길이 치솟으며, 프랑스 남부가 시커먼 잿더미로 변하는 21 세기를 살고 있다. 이 때, 기도하는 인물들의 삶과 신학이 유난히 흥미롭다. 명성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명성 너머 천상의 웅숭깊은 질서를 더듬는 기도, 영원한 진리를 향한 이들의 가성비 없는 기도의 갈망이 시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교파를 초월하는 통찰을 분여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향연, 변화산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영광이었다.

제이 팍 칼럼

# 가을 들녘에서 읽는 인생의 성적표



제이팍 의장
피코 유니온 주민의회

가을이 깊어 가는 길목에 서서, 이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 하나를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가슴을 채우는 단어는 단연 '결실' 입니다. 일 년 내내 들녘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정성을 쏟아부은 농부들에게 가을은 비로소 한 해의 노고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드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조용히 다가오는 이 수확의 계절에, 어떠한 결실이 맺혔든 서로의 풍요로운 마음이 더해져 온 누리에 기쁜 소식이 가득히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봄날의 시작은 늘 조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린 씨앗을 흙 속에 묻고, 여름 내내 자식이나 아기 다루듯 정성스레 보살피며, 거친 태풍과 아득한 장마를 견뎌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풍성하게 자라난 농촌의 평화로운 논과 밭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진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린 이들의 숭고한 열정이 써 내려간 눈물겨운 성적표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실한 과정의 열매입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서 견뎌낸 그 고단함을 지나 비로소 귀한 선물을 받는 기쁨은, 오직 밭을 일군 농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자 거룩한 보상일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편 126:5)"라고 말씀합니다. 수고와 열정이 없는 삶, 아무런 걱정도 책임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달려왔다면 과연 그 어떤 삶에서 감격스러운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결실의 가치를 알고, 고난을 버텨낸 사람만이 수확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새겨두신 변함없는 삶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심은 열정과 기도, 그리고 땀방울의 궤적을 거짓 없이 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이 자연의 순리와 너무나 꼭 닮아 있습니다. 태어나 자라며 맞닥뜨리는 희로애락의 수많은 굽이들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70이라는 인생의 중반 고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삶의 계절로 치자면, 마침내 지혜롭고 깊은 가을을 만난 것입니다. 70이라는 언덕 위에 올라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것은 마치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에서, 알차게 익어 고개 숙인 벼 이삭들을 바라보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 속에서도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 시간들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치열했던 지난날의 비바람과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련의 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장마철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기르셨고, 마침내 오늘이라는 감사의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맞아이재한 이 가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베풀어주신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쉼 없이 달려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삶을 돌아보며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TV 기독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chdailyl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YouTube

# 루터의 이슬람 이해부터 전도 방법까지…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가 유해석 교수 은퇴를 기념해 19일 대원장로교회에서 제13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슬람 선교'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개회예배, 주제발표, 자유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점심 식사와 교제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윤승범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진 박사가 기도하고 구성모 박사가 전도서 3장 1절을 본문으로 '세월을 읽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권효상 박사가 광고를 전했으며, 김승호 박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가 대원장로교회에서 제13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주최 측 제공

**유해석 박사 "루터의 이슬람 이해, 16세기 유럽 담론 속에서 형성"**

주제발표는 장훈태 박사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유해석 박사가 '16세기 유럽 위기 담론과 마르틴 루터의 이슬람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박사는 16세기 유럽이 정치적 질서의 변화와 종교적 재편을 동시에 경험한 전환기였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오스만 제국의 팽창과 종교개혁의 전개가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루터가 활동하던 시기가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유럽에서 절정에 달하던 때였으며, 루터는 당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이슬람의 확장을 단순한 정치·군사적 사안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박사는 기존 루터와 이슬람 관련 연구가 주로 루터의 오스만 투르크 이해, 반이슬람 논쟁, 종교개혁 신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이슬람 이해를 오스만 제국의 팽창 속에서 형성된 16세기 유럽의 위기 담론이 종교개혁 신학 안에서 재구성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세기 유럽의 위기 담론이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팽창과 기독교 세계 내부의 종교적 긴장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중세 기독교 세계 질서의 붕괴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동유럽 진출과 1529년 비엔나 포위는 유럽 사회 전반에 "다음은 어디인가"라는 불안을 확산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공포로 끝나지 않고 신학적 해석으로 이어졌다. 유 박사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이 기독교 세계 내부의 타락을 드러내는 계기로 이해됐으며, 회개와 경건,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16세기 유럽의 위기 담론은 '공포-심판-개혁 요구'라는 구조를 형성했고, 루터의 이슬람 이해에도 이 구조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루터의 이슬람 인식, 1542년 전후로 변화**

유 박사는 루터의 이슬람 인식이 한 시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환경과 종교개혁 논쟁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초기 루터는 무슬림과 직접 접촉하거나 꾸란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생산된 이슬람 논박 문헌에 의존해 이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루터가 이슬람을 독립적인 종교 연구 대상으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교황권과 가톨릭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루터는 이슬람을 행위 중심의 신앙, 외적 의식 강조, 권위 중심의 종교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했으며, 이를 통해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 박사는 1542년 전후를 루터의 이슬람 이해가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제시했다. 1542년 이전 루터는 제한된 정보 환경 속에서 무슬림의 기도와 금식, 절제된 생활 등 도덕적·사회적 측면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무슬림의 경건한 삶을 당시 유럽 기독교 사회의 신앙적 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비교 장치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542년 이후 루터는 꾸란의 라틴어 번역본을 접하면서 이슬람 비판을 도덕적·사회적 평가의 차원에서 교리적 대립의 차원으로 심화시켰다. 유 박사는 루터가 이슬람의 계시 이해와 신론, 그리스도론, 구원론을 기독교 복음의 본질과 대립하는 체계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루터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은 구원론의 토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피조물이나 선지자 수준으로 이해하는 이슬람의 교리는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유 박사는 루터의 이슬람 이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해석의 관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루터는 이슬람의 확장을 기독교 공동체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다. 그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독교 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타락을 회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슬람의 위협을 교회의 자기 성찰과 신앙 회복을 촉구하는 계기로 해석했다.

또한 유 박사는 루터가 이슬람과의 전쟁을 십자군식 종교전쟁으로 정당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루터는 이슬람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일을 세속 권력의 책임으로 보았고, 전쟁을 신앙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동체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적 무력 사용은 세속 통치의 기능으로 이해했다.

유 박사는 결론적으로 루터가 이슬람을 단순한 적대 세력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루터에게 이슬람은 외부의 위협인 동시에 교회의 신앙 상태를 시험하고 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 속 한국교회가 이슬람을 비롯한 타종교를 대립과 배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신학적 성찰과 선교적 책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과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대한 논찬은 최유석 박사가 맡았다. 최 박사는 유 박사의 연구가 오스만 제국의 팽창을 단순한 정치·군사적 위기가 아니라 종교개혁 신학 안에서 해석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루터의 이슬람 이해가 외부의 위기를 넘어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신학적 회복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김성운 박사 "무슬림 전도, 계시의 연속성과 꾸란 이해가 핵심 변수"**

이어 자유발표는 유경하 박사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김성운 박사가 '무슬림 전도 방법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다양한 전도 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이슬람과 꾸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전도 방법에 '계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슬람 안에서 성경 계시와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이슬람을 복음의 전달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고, 연속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은 이슬람을 논박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슬람 안에 하나님, 성령, 메시아, 창조, 아담, 아브라함, 모세, 타락, 죄, 구원, 심판, 낙원 등 기독교와 유사한 인물과 용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을 성령이 이슬람 안에서 일하신 흔적이나 성경 계시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로마서 1장을 근거로, 인간 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압하고 우상으로 대체한 결과이며, 이슬람 역시 그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꾸란을 무슬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해석학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교사가 꾸란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복음을 전하려 할 경우, 무슬림들은 이를 자신들의 해석 전통과 다른 자의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경을 이슬람적으로 해석한 주장을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꾸란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전도 방식도 무슬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하나님과 꾸란의 알라, 성경의 예수와 꾸란의 이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꾸란의 권위를 복음 전도의 기반처럼 사용할 경우 혼합주의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이를 선명히 대조해야**

김 박사는 무슬림 전도 방법을 대결적 접근, 성취론적 접근, 역동적 등가 방법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대결적 접근은 이슬람의 오류를 지적하고 꾸란의 모순을 논박하는 방식으로, 이슬람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데는 일정한 의미가 있지만 무슬림의 반감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도의 목적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취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이슬람 안에 부분적 진리나 복음의 성취 가능성을 찾으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박사는 꾸란을 찬그리스도적 또는 찬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꾸란 안의 유사한 용어를 복음 전도의 진입점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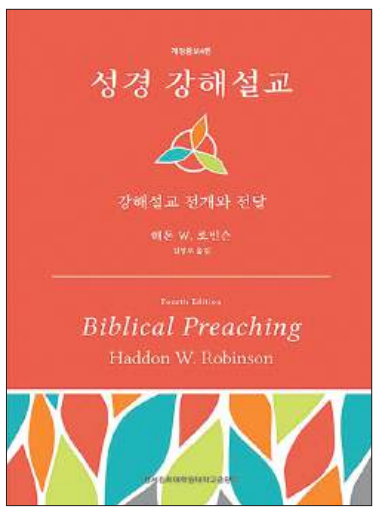
역동적 등가 방법과 내부자 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를 제시했다. 김 박사는 기독교의 명칭과 용어를 이슬람적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복음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성경적 표현을 무슬림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가 제시한 개혁주의적 대안은 성경과 꾸란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방식이다. 그는 무슬림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과 꾸란 해석을 존중하되, 꾸란을 자의적으로 기독교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슬림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꾸란을 이해하는지 경청한 뒤, 그들의 관심사에서 출발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강해 설교의 '바이블'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성경 강해설교:**
**강해설교 전개와 전달**

**해돈 W. 로빈슨 | 김광모 역**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 400쪽**

**1980년 초판 출간 이래**
**개정증보4판으로 이어지며**
**거의 반세기에 40만 권 이상이**
**설교자 후보생, 설교자,**
**성경 교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설교학 교과서',**
**'설교학 시학' 이다**

**개정증보3판(2014)에서는**
**강해설교 준비 단계에 설교**
**전개 연습문제를 증보했다**

**개정증보4판(2025)에서는**
**'신학 아이디어 표현 단계'**
**를 추가했고,**
**다음 세대 설교자가**
**새로운 문화에서도**
**성경 강해설교를**
**이어가게 돕는다**

**이제 한국교회 설교자가**
**그 도움에 힘입어**
**다시 달릴 수 있다**

해돈 로빈슨의 강해 설교에 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강해 설교 자체가 생소한 사람일 것이다. 그만큼 댈러스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 덴버신학대학원 총장,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설교학 명예교수로 섬긴 해돈 로빈슨은 강해설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많은 목회자와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7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 강해설교: 강해 설교 전개와 전달』은 1980년 처음 출판된 이후 2001년, 2014년 두 번 개정되고, 마지막으로 2025년 덴버신학대학원에서 해돈 W. 로빈슨 설교학 석좌교수로 섬기는 스콧 웨닉을 통해 네 번째 증보판으로 독자의 손에 선물처럼 전달됐다(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참고로 국내 소개된 로빈슨의 책 『강해설교: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는 이 책의 두 번째 증보판이었다(CLC, 2007). 웨닉은 머리말에서 "석의 아이디어에서 강해 또는 설교 아이디어 만들기로 이동할 때 신학 아이디어(theological idea) 단계를 추가했다"고 말했다(26쪽). 또 "문화 환경의 변화와 추가 연구와 관련해 몇 가지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첫 장은 그래도 성경강해 설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밝힌다. 몇 가지 분명한 이점이 있다. 첫째, 본문이 설교의 요점이 된다. 그래서 청중이 설교자의 의견과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 있다.

둘째, 본문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 설교자가 본문 주해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청중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납득하며 수용할 수 있다. 강해식으로 설교를 오래 들어온 청중에게는 그래서 본문을 한 번 읽고 다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설교자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본문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설교자 또한 들을 귀 있는 청중에게는 선호하지 않는 설교자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강해설교자의 임무는 성경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과 그것을 오늘날 청중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인데, 로빈슨은 그래서 강해설교를 "성서 개념, 곧 성서 구절을 그 문맥에서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해 길어내 바꾼 개념을 소통하기인데, 성령께서 이를 먼저 설교자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고서 그 설교자를 거쳐 청중에게도 적용하신다"라고 정의했다(42쪽).

성서침례대학원대 신약학 교수이자 출판부장인 김광모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단계를 로빈슨의 가르침에 따라 11단계로 구분하여 표로 만들었다(7쪽): 1) 설교할 성경 구절 선택 2) 본문 연구 3) 석의 아이디어와 전개 결정 4) 전개 질문 제시 5) 석의 아이디어를 신학 아이디어로 추상화 6) 설교 아이디어로 발전 7) 설교 목적 결정 8) 설교 목적을 이루는 설교 아이디어 다루기 9) 설교 얼거리 작성(뼈대) 10) 설명, 증명, 적용, 확충하는 뒷받침 자료 채우기(살) 11) 서론과 결론 준비(머리와 꼬리).

이는 로빈슨의 강해 설교 강의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는 준비 단계인데, 독자는 로빈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익힌 강해 설교 준비 단계를 실제로 설교를 준비할 때 활용하면서 간단하게 11단계의 목록으로 자신의 준비 과정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엔 설교 본보기와 평가가 수록돼 있어, 지금까지 가르친 강해 설교의 모범 예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설교 평가의 기준을 제시한다. 또 설교 준비 연습문제가 상당량 수록돼 있어(299-366쪽), 강해설교 준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연습 문제가 많은 독자에게는 그리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반응을 들은 로빈슨이 로버트 퍼멘터와 함께 여러 학생과 함께 검증한 연습 문제들이라고 하니, 이전에 비해 더 나아진 내용을 기대할 수 있겠다.



▲토마스 월리(Thomas Walley, 1817-1878)의 '조지 휫필드의 설교(George Whitefield Preaching in Bolton, June 1750)'. ⓒartuk.org

로빈슨의 『성경 강해설교』의 가장 최신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책을, 강해설교를 사랑하고 또 강해설교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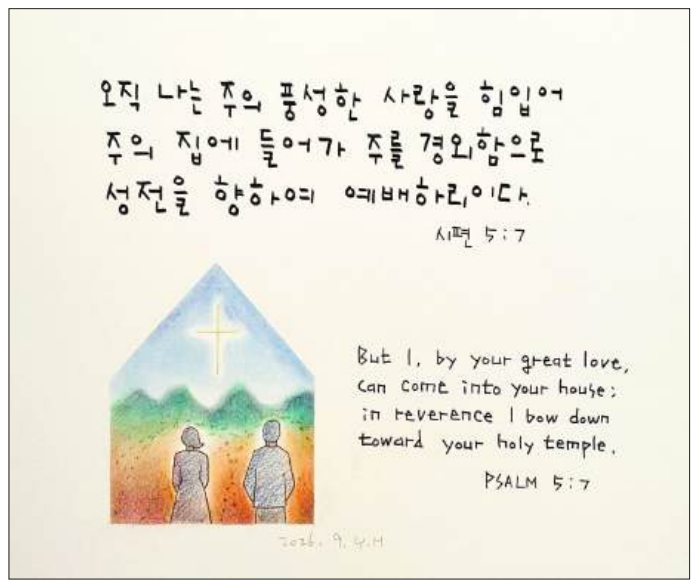
살짝 아쉬운 점은 간혹 번역 어투가 존댓말로 바뀌었다 반말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과 내지 디자인이 독자가 읽기에 더 편안하고 깔끔했으면 하는 부분이지만(오래된 교재를 읽는 느낌이 있다), 책에서 중요한 것은 담고 있는 내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충분히 소장하고 읽고 활용하고 또 삶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돈 로빈슨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는 열정에 사로잡혔는지 이 책을 통해 알고 배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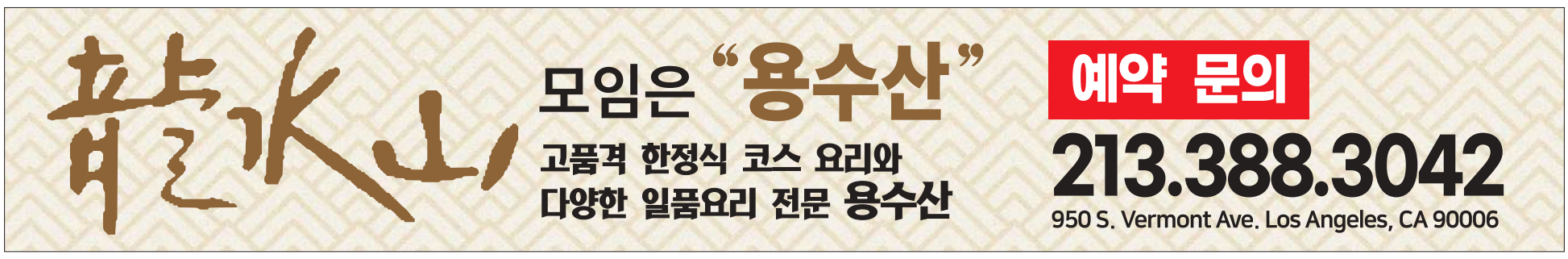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붙들려, 열정적으로 또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이 책을 사용하기를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부서진 아름다움: 크리스천 예술의 적정률 (4)*

# 부서짐, 파괴 아닌 신성함 수용할 수 있는 '조건'

### '부서진 미'를 위한 변론 4: '부서진 아름다움' 전시와 현대 미술

현대 미술계는 전통적으로 성경적 내러티브나 기독교적 도상을 미학적 주제로 다루는 것을 기피해 왔다. 그런데 북미 작가 15명의 구상 회화 및 조각을 모은 '부서진 아름다움(A Broken Beauty, 2005)' 전시는 이러한 금기를 깨고, 인간 신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어떻게 현대 예술의 가장 첨예한 실존적·미학적 질문들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전시 기획자 고든 퍼글리(Gordon Fuglie)는 기독교 작가들에게서 대안적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는 고전적 전통과 기독교 전통의 결합을 통해, 기쁨과 고통, 온전함과 상실이라는 상충하는 경험을 하나의 서사로 통합하며, 관습적인 이상화를 경계하고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영적 '부서짐'을 미학적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온다.

"'부서진 아름다움'의 작가들이 그려내는 인간성이 그 시대의 길고 슬픈 유산에 의해 표시돼 있다는 점은 21세기 관객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유산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작품 속에 담긴 인간성과 초월성은 희망 또한 구현하고 있다(Gordon Fuglie, "A Broken Beauty and Its Artists", A Broken Beauty, B. Eerdams Publishings Co., 2005, 79쪽)."

'부서진 아름다움'은 폭력의 역사와 세속주의의 승리라는 우울한 조건 아래에서 인간의 신체성을 재고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퍼글리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영적 부서짐이 결코 아름다움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조건에 대한 정직한 대면을 통해 구원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전시는 몇 가지 주제로 인간의 복합성을 탐구한다. 첫 번째 주제인 '타락 이후(After the Fall)'는 창세기 서사를 현대적 삶의 소외와 단절로 치환하여 인류의 근원적인 취약성을 다룬다.

조엘 시슬리(Joel Sheesley)는 '여정 중의 나체'와 '낙원 이후'를 통해 아담과 하와(이브)를 현대 교외의 황량한 숲을 헤매거나 소외된 침실에 머무는 평범한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타락 이후 인간이 겪는 비애감과 소외를 드러낸다.



▲에드워드 니퍼스, 수확(아담과 하와), 2002.

또 에드워드 니퍼스(Edward Knippers)는 '수확'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어두워질 인류의 운명을 예고한다. 하나님의 찬란한 에덴동산 한가운데 있는 금지된 나무 그늘 아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안색이 좋지 않은데, 타락 이전만 해도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였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다. 하와는 슬픔에 잠긴 공허한 눈빛을, 아담은 아예 시선을 외면한 채 등을 돌린 모습으로 구현된다.

두 번째 주제인 '실재와 마주하다(Presence Encountered)'는 현대 미술에서 소외됐던 마리아 도상을 복원하며 성육신의 신비가 부서진 현실 속으로 어떻게 개입하는지 조명한다.

브루스 허먼(Bruce Herman)의 '수태고지(Annunciation)'는 안료를 칠하고 긁어내기를 반복한 '폐허로서의 고전적 신체'를 통해 '인간의 부서짐'이 오히려 신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을 시사한다. 그녀의 팔은 마치 밀로의 비너스를 보듯이 부러지거나 없어진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이며 구원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를 암시한다.

세 번째 주제인 '역사의 공포(The Terrors of History)'는 홀로코스트와 인종 청소 등 인류가 저지른 구체적 악의 현장과 그로 인해 파괴된 신체를 응시한다. 제롬 위트킨(Jerome Witkin)은 '어둠 속으로' 연작에서 기독교인 간호사 도로시 왈스트롬을 안내자로 설정, 관객이 수용소의 참혹한 실재를 대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전체주의의 잔혹함을 폭로한다.

리처드 하든(Richard Harden)은 1990년대 발칸반도 내전과 인종 청소가 한창이던 시절 그곳을 방문한 후, 성공적인 판화 경력을 뒤로하고 화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3부작 '나의 숨결'에서 그는 아름다운 양귀비밭 속에 가려진 해골 유해로 보는 사람을 경악시키기도 하고, 화면 양 옆에 '추락'이라는 제목의 여성 누드 패널을 각각 배치해 전쟁의 광풍 속에 붕괴된 인간의 이상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네 번째 '존재의 신비(The Mystery of Being)'는 인간이 지닌 본성과 영적 갈망, 육체적 한계 사이의 실존적 긴장을 다룬다. 스티븐 데 스테블러(Stephen De Staebler)는 '멍에: 날개 달린 사람'을 통해 대지에 뿌리를 박은 신체와 하늘을 향해 날고자 팔을 뻗는 불완전한 인체를 보여준다. 즉 우리가 살고 욕망하는 세상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염원하는 고향 사이에서 실존적 고뇌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암시한다.

팀 로울리(Tim Lowly)는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모델로 한 '나를 데려가 줘'를 통해 인지 능력이나 가동성이 거세된 신체성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신비를 발견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 번째 '성스러워짐(Sanctified)'은 성별화를 도덕적 무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하게 대면할 능력을 회복하고 실재하는 고통에 공감하는 상태로 재정의한다.

패티 위크먼(Patty Wickman)은 '무명(성 아가타와 함께)'에서 고문당한 순교자와 가슴 보형물을 든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병치해, 물리적 완벽함에 집착하는 현대의 피상적 미학을 비판한다. 그런가 하면 브루스 허먼은 '본회퍼'에서 게슈타포에 의해 교수형을 당하는 순교의 순간을 금박의 신성과 독일의 폐허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표현하여 죽음을 통한 영광의 변모를 가시화한다.

마지막 주제인 '에케 호모(Ecce Homo)'는 고난받는 예수의 형상을 통해 성육신의 신비를 최종적으로 조명한다. 데이비드 로빈슨(David Robinson)은 '폰트'에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 속에 구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원반(분수대) 위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물동이를 진 사람처럼 묘사돼 있는데, 이는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브루스 허먼, 수태고지, 2002.

이처럼 퍼글리가 분류한 주제들은 인간의 신체를 이상적인 박제물로 보지 않고 상처 입은 존재로 풀이함으로써, 부서짐이 결코 아름다움의 반대가 아니라 신성한 은총과 희망이 유입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나타낸다.

퍼글리는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참혹한 폭력의 역사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승리가 인간의 영적 본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지적한다. 그는 물질주의가 인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적 본성을 왜소화했다고 분석하며, 예술가의 과업이 단순히 예쁜 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에 대한 탐구'를 회복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결국 이 전시는 불안과 소외로 점철된 현대 문화 속에서 현실에 눈을 돌려 상처 입은 존재를 직시한다. 부서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인간이 신성함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퍼글리가 강조하듯 "우리의 부서짐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고 구원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부서진 아름다움'은 결코 상처를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깨어짐을 통해 초월성과 희망이 흘러나오는 창구이며, 고통받는 신체들을 낯선 타자가 아닌 나의 '이웃'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정직한 성육신적 실천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리처드 하든, 나의 숨결(양 날개에는 추락), 2001.




# 베데스다 대학교 50주년 '100년 향한 대전환' 선포



베데스다대학교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9일, 50주년 기념식 및 제11대 총장 · 부총장 취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고(故) 조용기 목사의 비전으로 지난 1976년 미국에서 출범한 베데스다대학교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9일, 대학 주차장에 마련된 대형 특설 행사장에서 50주년 기념식 및 제11대 총장·부총장 취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가을 야외 특설 행사장을 가득 채운 150여 명의 축하객과 동문, 교직원들의 열기 속에 치러진 이날 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100년을 향한 대전환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제11대 고경환 총장(순복음원당교회 담임목사)과 샘 신 부총장(샘중앙커뮤니티교회 담임)의 취임식에 모였다. 고경환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50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섬겨온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본질 위에서 더욱 강력한 영적 도약을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총장은 "대학의 근간이 되는 신학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대를 이끌어갈 신학생 집중 모집과 영적 인재 양성에 학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경환 신임 총장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역설했다.

고 목사는 1부 감사예배 설교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추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데스다대학교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할 때 그 영향력이 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설 행사장에는 각계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연방 하원의원 영 김 의원과 가주상원의 원 최석호 의원의 영상 축하를 비롯해,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과 LA 및 오렌지카운티(OC)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대학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함께 취임한 샘 신 부총장은 "창립 50주년은 과거를 회고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에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심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976년 설립 이후 다양한 전문 분야로 영역을 넓혀온 베데스다대학교는 이번 50주년과 신임 총장 취임을 기점으로, 본연의 정체성인 '신학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 사역자 발굴,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 글로벌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서 새로운 50년의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학교 경영권 및 이사회 구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은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조승제 전 총장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024년 3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California Court of Appeal, 제4지구 제3부)은 베데스다대학교 경영권 및 이사회 관련 소송에서, 대학의 정관 및 바이로(Constitution and Bylaws)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순수 종교 교리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법적 문서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상대 측이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Certiorari)를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5년 2월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기각)함에 따라 조승제 전 총장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정호 선임 기자

# 그레이스 김, 오랜 시간을 건너 붓을 들다




이민 생활 속 오랜 시간 붓을 내려 놓았던 그레이스 김 작가가 다시 붓을 들었을 때, 사물들 및 캘리포니아 자연이 캔버스 속 여러 색채로 되살아 났다.

생업에 밀려 유보되었던 창작의 기쁨을 다시 찾은 그레이스 김 작가는 오랫동안 묻어 두었던 화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만나며, "과연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조금씩 붓을 잡기 시작하니 예전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자연이 주는 색과 빛을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하면서 평온함 속에서 작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월 첫째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EK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김 작가는 학창 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후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다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던 중 캔버스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작가는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동안 전혀 하지 못했다"며 "항상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캔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이 나인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 활동에서는 자연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택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연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작품에 담았다. 그는 "제 작품의 특별한 점은 자연 현장에 직접 찾아가 그렸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그리다 보니 색깔도 밝고 깊이가 있게 표현된 것 같다. 전시를 찾아오신 분들이 작품을 좋게 봐주셔서 기쁘고 보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는 밝은 색감과 자연의 빛이 두드러진다. 그는 평소 밝은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같은 풍경이라도 빛에 따라 그린 것이 모두 다르다. 자연의 빛이 달라지면서 색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베트남 고원지대, 만행에도 '주님 위해 죽겠다'

베트남 고원지대에서 신앙의 증언들이 한국교회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다.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끓는 물을 뒤집어쓰고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당한 T 자매의 참혹한 비극은 빙산의 일각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 고백으로 재산과 생명의 위협에 맞서는 베트남 성도들의 고통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절규이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에 따르면, 약 3년 전 공격받았던 T 자매는 올해 다시 폭도들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해 몸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폭도들은 '당국의 지시'라며 끓는 물까지 끼얹고 신앙 부인을 강요, 그는 핀 삽입 수술과 부목 고정 치료를 받아야 했다. O 형제 부부는 마을 퇴거 요구를 거부하자 재산 갈취와 흉기 위협에 직면했으나,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굳건히 고백했다. 복음 전도 중 미행당해 사고를 당한 H 형제의 아들은 머리 부상으로 뇌출혈 수술을 고려하는 등 복음 전파의 희생도 컸다.

베트남 당국은 조직적인 종교 탄압을 이어갔다. 에데족 Y 누엔 아윤 목사는 지난 9월 1일 '국가 통합 정책 저해'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기독교계 소수민족에 대한 위협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베트남 성도들의 모습은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물든 한국교회에 초대교회 순교 신앙의 현대적 재현이자 깊은 각성을 요구한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와 해외 동역 단체들이 이들을 돕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고난받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와 실질적인 지원에 적극 동참하여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강지선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 부모의 이 한마디가 자녀를 가난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선영 선생님 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아이 세명이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만 월급은 남들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아이들 교육은 절대적으로 잘 시키자 하면서 이 세아이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정말 한달 벌어 한달 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남들은 저희에게 은퇴 걱정 없겠다고 하지만 남편 401k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 따로 뭔가를 준비할 엄두는 못 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정말 현명해 보이는 엄마가 한분 있는데, 애들 교육비 거의 투자 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저희의 절반의 절반도 안됩니다. 지난 여름에 그 집 큰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방학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고, 그 돈으로 본인의 구좌에 얼마를 넣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또 그 집 작은애가 용돈으로 모으고 부모가 도와준 금액으로 이미 저축 구좌에 꽤나 돈이 모은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이번 겨울 형이랑 함께 한국 가는 비용의 절반을 내게 할 거라도 하는데 아 이건 뭐지? 하는 의문의 일패를 맛본 것 같더라구요. 다만 자존심이 상해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며, 돈을 모르는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아이 돈 교육은 그냥 완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미래 대학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지금도 구직란이 문제인데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꼭 AI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니 꼭 좋은 대학을 가도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부모로써 뭘 제공하라는 것일까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교육관은 각자가 다르겠으니, 저는 재정전문가로써 재정관에 대해서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은 돈을 배우느게 아니라 부모를 복사합니다.** 아이에게 "저축해야 해"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지출에 대한 통제 없이 카드빚을 계속 늘린다면, 아이가 배우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집에 천불 보너스가 들어온다고 할때 부모의 생각이 와 TV가 좀더 컸으면 했는데 잘 됐다 TV를 바꿔자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 다른 가정은 천불 보너스가 들어왔으니 $200은 가족을 위해 쓰고, $300은 비상금으로 두고 $500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 이자를 받아 볼까라고 한다면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이 배우는 돈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겠지요?

**둘째 우리는 돈이 없어와 이건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아이가 $150 짜리 운동화를 사달라고 할 때, 절약하는 부모라서 "안돼 우리가 돈이 없어, 돈이 그냥 생기는 줄 아니?"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살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그 돈을 사용하는게 중요할까? "라고 말하는 부모가있습니다.

전자는 아이에게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부모는 아이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개념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셋째는 소비가 아니라 소유를 가르쳐 줬으면 합니다.** 물건을 산다는 것은 소비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내 재산에서 그 물건을 산 만큼 내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그 회사의 물건을 갖고 싶니? 아니면 그런 회사를 갖고 싶니? 라고 말해
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모으고 돈을 활용해서 결국은 자산을 굴리고 운영하는 사람의 큰 관점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아껴써"라는 소극적인 돈의 운영이 아닌 크고도 강력한 돈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넷째 그래서 $150불의 운동화 보다 $150의 투자가 아이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가령 아이가 15세일때 부모가 $1,000을 **미래를 위해 7– 8% 복리로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이가 25세가 되면 약 $2,150이 되고 35세에는 $4,661, 45세에는 $10,063, 55세에는 $21,725, 65세에는 약 $46,902가 되겠죠. 시간이 돈을 키우는 복리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는 투자의 개념이 확실히 자리잡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용도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저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부터 재정에 대한 교육과 재정관도 필요하겠지요. 부모의 재정관과 아이의 저축에 대한
궁금증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할 지, 어디에서 시작할 지 문선영의 머니토크팀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7825 Engineer Rd.,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제 4기

#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 말씀을 쓰다, 믿음을 새기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35명 선발**

**1인당 장학금 $1,000**



## 지난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었습니다."

| | |
|---|---|
| 성경필사 본문 |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
| 응모대상 |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만 14세~25세) |
| 신청방법 |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 신청마감 | 2026년 11월 6일 (토)까지 |
| 장학생 선정발표 | 2026년 11월 13일 (토) 개별통보 |
|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 2026년 11월 20일(토) 오전 10:30<br>LA 장로교회 (한현종 담임목사)<br>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
| 장학금 전달식 | 2027년 7월 중 (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
| 문의 |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br>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신청 QR 코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